

「PF 대주단 협약」 협약식

축 사

'23. 4. 27.(목)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I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입니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협약 개정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은행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금융협회·중앙회장님,
그리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 대주단 협약의 의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언론과 국회, 그리고 시장전문가들도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올 한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쏠 금융권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사업장을 둘러싼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다면,

앞으로는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율협약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 정상화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Ⅲ. 금감원의 역할과 지원

금융감독원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금감원 내에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쫄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회사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사업장 정상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IV. 맺음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번 대주단 협약이 시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정상화 모범 사례가 도출되어
널리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참여한 각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협회장님들의 부드러운 조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